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81.82 (-25.14)	860.47 (+2.3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403 (-0.063)	1375.40 (+11.30)

'경영난' 빅5병원
의료기기 업체에
일방적 가격인하 요구
02



비상대응반 가동... 환율·유가 요동치면 경제 시계제로

'중동사태' 긴급 경제안보회의
국내외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리스크요인 점검·신속 대비책 운용
원자재 수급·공급망 등 분석 관리
재외국민·선박 안전대책 등 주문

정부가 금융시장 동향 및 원자재수급 점검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하는 등 전쟁위험 중동사태에 초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치솟던 상황에 단행돼,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상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이날 오전 열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금융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

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의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가 조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또 "대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 강화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휘발유 값은 최근 5개월 새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전일 대비 1당 1.79원 오른 1687.1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3일(1691.14원) 이후 가장 비싸다. 전 저점인 1562.47원(올해 1월20일)에 비해서는 3개월 만에 무려 7.98%(124.70원) 올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두바이유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각각 90.45달러,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배럴당 75~82달러 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유류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 12일 1375.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증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최근 6거래일 만에 25원 넘게 올랐다.

/세종=김연세, 서예진 기자 kys@metroseoul.co.kr

'새로운 금' '꿈의 10만 달러' 비트코인 폭등 기대감 여전

반감기 D-4

과거 반감기 후 가파른 상승 보여
올 연말 '강세 사이클 정점' 예상

가상화폐 시장의 최대 호재로 꼽히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격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비트코인의 10만달러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반감기는 지난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호재로 꼽힌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수요 증가를, 반감기는 공급 충격을 이끈다는 분석이다. 매도 압력 없이 수요가 꾸준한 상태에서 공급이 준다면 가격 상승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14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770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지난주(7만달러)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하락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투자자들이 차익매물을 쏟아낸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향후 반감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전환할 것이라 기대감이 높다.

비트코인은 전체 유통량이 2100만개

선에서 제한되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까지 19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됐고, 모든 채굴이 끝나는 시점은 2140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반감기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9일 새벽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채굴 보상은 2009년 첫 출시 당시 비트코인 50개였지만, 2012년 11월(채굴보상 1블록당 25비트코인), 2016년 7월(12.5비트코인), 2020년 5월(6.25비트코인) 세 차례 반감기를 거쳐 오면서 확연히 줄어들었다. 오는 19일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3.125개까지 떨어지게 된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 2016년, 2020년)에서는 반감기 후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1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6개월 후인 2013년 5월 14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1380% 폭등했다.

두 번째 반감기였던 2016년 7월에는 650달러를 기록, 이후 6개월 뒤 1100달러를 기록하면서 70% 상승했다. 이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 12월 1만6000달러를 돌파했다.

세 번째 반감기인 2020년 5월에는 8100달러에서 6개월 후 처음으로 1만8000달러 돌파했고, 3개월 뒤에는 6만1000달러를 기록했다. <4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총선 패배' 尹, 총리·참모진 등 쇄신 고심

새 비서실장 발표 시일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차기 총리와 3기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 비서실장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또는 금주 초에 새 비서실장을 인선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및 실장·수석급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거는 모두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느끼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총리,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의 인사 검증과 더불어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

부 장관,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불통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쓴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전당대회나 비대위냐... 총선 참패 국힘, 15~16일 의견수렴
▲ 김기현 "정치개혁 늦춰선 안 돼... 민주·조국당과 달라야" /사진 뉴시스

▲ 여당선인 108명, 16일 한 자리에... 현 총원 참배 후 총회
▲ '비윤' 나경원-안철수, 여 당권 도전 '이해득실' 저울질



▲ 조국 "총선서 재외국민 압도적 지지... 높은 국격 위해 노력" /사진 뉴시스
▲ 중진 간담회·당선인 총회 놓고 여 '의견분분'... 간담회 불참 의원도